

BTS·윤여정, 운명의 날

오전 4시 '프리미어 세리머니' 예고 BTS 수상편 '美 3대 팝음악상' 품에 윤여정, 아카데미상 조연상 유력 후보 노미네이션편 한국배우로는 첫 영예



그림 방탄소년단과 배우 윤여정(오른쪽 사진)이 15일 각각 미국 그라미 어워즈 수상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지명을 노리고 있다. 이날 오전과 밤 드러날 이들의 성과 여부는 전 세계 대중음악사와 영화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부산국제영화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15일 그림 방탄소년단과 배우 윤여정이 또 하나의 굵직한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각 한국가수와 배우로서 최초의 도전에 나서며 국내외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한국가수 첫 그라미 어워즈 수상을 노린다. 윤여정은 한국배우 최초의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가 될지 여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이들이 각기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면 한국 대중문화사는 또 한 번 다시 쓰이게 된다.

● '다이너마이트'와 '미나리'의 힘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전 9시(이하 한국 시간)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63회 그라미 어워즈 시상식에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무대에 오른다. 수상 여부는 본 시상식에 앞서 이날 오전 4시 막을 여는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판가름난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다이너마이트'로 후보가 된 이들은 제이 발빈·두아 리파·베드 버니&타이아의 '언 디아(UN DIA)', 저스틴 비버·케이보의 '인텐션(Intention)',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Rain On Me)', 테일러 스위프트·본 이베어의 '엑사일(Exile)'과 경연한다.

만일 수상한다면 앞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이어 '미국 3대 팝음악상'을 모두 품에 안으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이들은 첫 영어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지난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1위로 올랐다. 또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이후 4연속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아티스트의 역량을 과시해왔다. 올해 그라미 어워즈에서 단독 공연까지 펼치기로 해 수상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윤여정은 이날 밤 9시30분 제93회 아카데미상 후보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올해 4월26일 열리는 시상식에 나설 작품과 관련 배우·감독 등 각 부문별 후보를 발표하는 가운데 윤여정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 지

명의 기대를 낳고 있다. 후보가 된다면 한국배우로는 첫 아카데미 연기상 노미네이션이다. 이미 미국에서 30개의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받으며 유력 후보라는 전망을 이끌어왔다. '미나리'도 작품상과 감독상(정이삭), 각본상 등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보수적 분위기를 깨라!** 그라미 어워즈와 아카데미상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중적인 상으로 꼽힌다. 시상식도 스타들의 면면으로 화려함을 자랑한다. 올해 시상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예년보다 다소 늦게 열리지만 방탄소년단과 윤여정에 힘입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시상식은 그동안 미국 '백인' 및 영어권 문화 중심의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라미 어워즈는 최고 글로벌 그룹으로 불려온 방탄소년단을 지난해까지 후보에서 배제해 많은 해외 언론의 아쉬움 속에 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비판적 시선에 시달려왔다. 아카데미상은 지난해 비영어권 아시아 영화인 '기생충'에 작품상 등 4개 부문 상을 안겨주면서 다양성 확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탄소년단이 그라미 어워즈를 수상하고 '미나리'와 윤여정이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다면 향후 두 시상식이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월년'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놀면 뭐하니?' 제작진, 이미지 무단 사용 사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이미지 무단 사용 논란에 사과했다. 14일 제작진은 SNS를 통해 "전날 방송한 84회분 사용 자료 중 특정 그림의 출처 표기를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놀면 뭐하니?' 측은 윤직원 일러스트 작가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출처도 잘못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제작진은 "원작자인 윤 작가에게 즉시 정중히 사과드리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작가는 "제작진이 정중하게 사과해주었고,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SNS에 내부 갈등 글 올라...그림 신화 '불화설'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불화설에 휩싸였다. 리더 에릭은 14일 SNS를 통해 동료인 김동완의 SNS 계정을 언급하며 그룹 내부의 갈등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근본부터 펼쳐놓고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활동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그룹으로 투입시키겠다고 단제 소통과 일정에 피해를 줬지만 팬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썼다. 6인조 신화는 1998년 1집 '해결사'로 데뷔해 23년간 멤버 교체 없이 팀을 유지해왔다.

홍현희, 학폭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취하



개그우먼 홍현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A씨를 고소한 뒤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소속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다음 날 A씨가 홍현희에 연락해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라며 "홍현희는 A씨를 만나 사과를 받고 고소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현희의 고등학생 동창이라는 A씨는 그의 언어폭력 등을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그라미 입성 관련 다큐·특설무대...오늘은 'BTS 데이'

방탄소년단 영화·예능 등 특집방송 엠넷 '그라미 어워즈' 시상식 생중계

'BTS DAY.' 그 그림 방탄소년단(BTS)의 '그라미 입성' 관련 프로그램이 잇따라 방송된다. 각 방송사는 방탄소년단이 15일(이하 한국시간) 한국가수 최초로 그라미 어워즈 후보가 된 것을 기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그라미 어워즈 시상식 중계부터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와 이들의 각종 시상식 무대, 히트곡 관련 프로그램 등 다채롭다. 엠넷은 이날 오전 9시 그라미 어워즈

시상식을 생중계한다. 배철수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통역가 안현호가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지명된 방탄소년단의 수상 여부는 물론 이들이 펼칠 단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다. 이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더 현대서울 옥상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관련 공연을 사전 촬영해 그라미 측에 전달했다. 평소 "그라미 단독 무대가 꿈"이라고 밝

혀온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전부터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해 밤늦게까지 무대를 펼쳤다.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 영화도 TV를 통해 볼 수 있다. JBTC는 이날 밤 10시30분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를 방영한다. 2019년 방탄소년단의 첫 스타디움 월드투어의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개봉했다. JTBC4는 오후 1시 '골든디스크 베

스트 퍼포먼스' BTS 편을 선보이고,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이능행'과 '한끼줍쇼'도 다시 방송한다. 이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14일 SBS 음악예능프로그램 '전설의 무대-아카이브 K' 마지막 회를 장식했다. 이들은 해외 진출 첫 순간부터 정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공개했다. 특히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 올랐던 당시를 떠올리며 "너무 무서웠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yo@donga.com

류창렬의 좋은생각 리셀한

류창렬의 좋은생각 리셀한으로 변비탈출!

차진자피

드신후 호전반응

1. 드신후 30분내 영구메 영이 나고 따끔거림(어혈이 풀리는 중세)
2. 드신후 3시간 내2-3번 똥이엿칭 알아배설됨(속변이 해소되는 중세)
3. 대변이 똥에 동등하게 똥(소화된 중세)
4. 자통다이어트
5. 자통장애,유해,상해,통려하여 요근계 걸린다(만사행통 중세)

순도 98%

이것 저것 다 해봐도 효과가 없다?
변비탈출!
다이어트 고민
해결!

류창렬의 좋은생각 리셀한은 천연 변비치료제로 알려진 차진자피와 천연원료만을 혼합, 제조하여 변비는 물론 장내 환경개선을 통해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진자피는 질경이 씨앗중에서 외피부분 즉 겉껍질을 말합니다. 특유의 효능과 풍부한 식이섬유로 쉽게 부풀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변비는 물론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진자피는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차진자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찌꺼기를 흡착하고 대변의 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크기를 늘려주고 대장 통과시간을 단축시켜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처: 대표 1644-6733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광환산 010-5647-5428 이병분 010-2222-3776 신버전 010-9220-4334 최근너 010-5728-2889 홍영순 010-8256-9678 김주연 010-6258-5989 • 여의도 김형수 010-4760-9244 • 인천 송원포 010-6717-1779 서경애 010-7478-5616 • 안화대 서동금 010-4712-6648 • 대전 오경숙 010-7490-0688 황용길 010-2623-9151 김희석 010-7441-9141 천달만 010-2391-8259 김진규 010-8029-005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박광순 010-3903-1885 백상석 010-309-1000 박상경 010-7751-4467 강병욱 010-3560-0620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원주 한요한 010-9079-0049 황무순 010-2292-0991 최지혜 010-5447-0049 • 광주 이보영 010-9270-9170 • 전주 전계정 010-3074-7895 이상용 010-3024-7072 • 수원,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최택수 010-4830-1810 박정자 010-9345-9810 • 부산, 울산, 광주 백민준 010-6462-6712 • 강원 이승현 010-5769-0532 정인태 010-7586-7985 조은주 010-3873-3088 정정인 010-6437-9287 • 김해, 창원 천정우 010-3567-4894 안세경 010-6676-1630 • 충청 고영철 010-5463-6952 • 동두천 이영자 010-6706-3816 김효섭 010-5476-4111 • 성주 이정욱 010-3539-9777 • 천안 오영숙 010-8804-3424 • 충북 송동욱 010-4280-4616 남미옥 010-7659-8893

*조건
1. 제품 100만원 구입(별도 부지 없음)
2. 7일간 교육 무료

*혜택
1인당 평생필 3000원 이상 수익가능